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안남도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어제 교우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3. 월삭새벽기도회가 8월 1일(수) 오전 5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학생·청년부 여름수련회’가 8월 2일(목)-4일(토)까지 부흥세대커뮤니티 주관으로 평내동에 있는 서경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낮예배 기도담당은 김윤식 장로님입니다. 오후찬양예배는 정진숙 권사님입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7월 22일	7월 29일	8월 5일	8월 12일
예배기도(오전)	박성근 집사	유종열 장로	김윤식 장로	신태식 장로	
예배기도(오후)	교사 강습회	목장모임	정진숙 권사	전교인수련회	
주일식사담당	눔바 목장 (유숙정 권사)	로뎀 목장 (정진숙 권사)	에스더 목장 (오효근 권사)	한나 목장 (이영선 권사)	
토요일청소	에덴 목장 (7/28)	돌로스 목장 (8/4)	주사랑목장 (8/11)	갈렙·아론목장 (8/18)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학생부 여름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2. 남·여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병환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국내)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교독문 64번(시편 148편) 다같이
*경배찬송	26장(통 14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298장(통 35장) 다같이
대표기도	유중열 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요 3:16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내안에복음이있는가'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달
의
말
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
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주일&전도주일로 인해 오후예배는 없습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8:31-39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를 향한 과녁'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82:1-8 '제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1)-(5)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몽골,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보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초원. 정작 척박한 불모지다. 작열하는 태양과 소, 말, 양, 낙타, 갈증 등이 떠올랐다. 대체로 부정적 이미지의 나열이지만, 그럼에도 온 신경을 잡아끄는, 광활한 태고의 자연에 펼쳐진 낯선 것들의 향연이기도 하다. 그게 매력으로 다가왔다. 어딜 가나 야생화가 만발한 푸른 초원과 가끔씩 보이는 전나무가 우거진 초록 산, 그 뒤쪽으로 얼굴을 내민 바위산, 초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하얀 게르의 군락. 그렇게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하다. 오랫동안 초원을 동경했던 이유랄까. 비단 그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생명력 있는 복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한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몽골 단기선교팀’의 여정은 험난했다. 비행기로 3시간 남짓,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목적지인 다르항까지 육상교통으로 4시간, 그래서 도합 7시간이 걸리는 여행길이었다. 그나마 대형버스로 이동했기에 큰 불편함은 피할 수 있었다. 그렇게 다르항 소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의 환대 속에 사역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도착했다. 간단한 인사 후에, 숙소인 키워호텔로 이동했다. 배정받은 각자의 방에서 여장을 풀고는 다음 날 있을 선교사역을 준비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팀원 대부분이 몽골에서 맞는 첫날밤이었다. 평온한 듯 보이지만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예정했던 미용봉사, 청소년 캠프, 주방봉사 등은 실내사역이라 무난하게 진행되었지만, 외부사역인 도로포장은 오락가락 내리는 비로 인해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 없이 묵묵히 그 힘든 일을 감당했다. 서로를 쳐다보면 가슴 먹먹한 순간이기도 했다. 사역 이틀째, 비가 잠시 멎었다. 전날 사역에 이어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그 가운데서도 몽골 현지인 성도들의 가정심방은 저들의 삶과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보았다. 스무 명의 섬김을 통한 사역은 복음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

Written by 허영진